

아동상담에 대한 보육교사와 유아기 어머니의 인식 및 요구

The Child Care Teacher's and Mother's Recognition and Need about Child Counseling and Therapy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강 사 문 수 경*

광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 수 박 상 희**

광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 수 이 무 영

Dept. Child Studies, Mokpo National Univ.

Instructor : Moon, Soo-Kyung

Dept. Early Childhood Education, Kwangshin Univ.

Professor : Park, Sang-Hee

Dept. Social Welfare, Kwangshin Univ.

Professor : Lee, Moo-Young

<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child care teacher's and parents's recognition and need about child counseling and to analyse differences between them.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244 child care teachers and 260 mothers of the day care center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Most child care teachers are aware of child counseling through lecture, pre-service education, and internet. Most mothers hear about child counseling through internet. They think that child counseling is very effective for young children, especially for negative experience and emotion. Most child care teachers think that they can administer child counseling, especially daycare centers. But mothers think that special facilities is the most appropriate place by child counseling. Child care teachers and mothers regard the credibility of human beings as personal characteristics required for child counseling. Counseling specialists are to be the most appropriate person for followed by child care teacher's and parents. And they think that special training is needed for child counseling, but few of them receive special training. They perceive the necessity of professional education in child counseling, but they rarely experience related education of child counseling. Especially, they feel lack of time and information. They also want to apply to child counseling children education after learning it through counseling association or by observing real situations in child counseling center using morning time or during weekends. Most mothers and child care teachers know play therapy, art therapy, bibliotherapy, sand play therapy.

▲주요어(Key Words) : 아동상담(child counseling), 치료(therapy), 보육교사(child care teacher)

* 주 저 자 : 문수경 (E-mail : mskyung84@hanmail.net)

** 교신저자 : 박상희 (E-mail : cozy386@hanmail.ne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격한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생활의 발전을 가져왔으나 인간관계의 발전에서 본다면 많은 해결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전통적인 가정의 위기와 가정의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은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와 청소년, 아동에게까지 정서적 불안과 비행, 정서 행동적인 문제들이 확산되고 있어 아동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아동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특성이 강해서 환경적 원인을 스스로 제거하거나 예방할 만한 힘이 없다. 즉 아동은 부모를 혹은 학교나 또래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단지 그들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뿐이다(김순혜, 2001). 아동이 성장하면서 드러내는 문제는 부모, 교사, 또래 등과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아동의 정신적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최근 아동상담에서는 치료자와 더불어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상담의 시작과 끝, 지속과 중단과 같은 진행과정이 부모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아동 상담이 아동 개인만의 변화보다는 부모가 치료적 변인으로서 아동과 함께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부모는 상담 조력자의 역할을 통해 아동상담을 촉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초기종 결과 같은 상담 실패에 직면할 수도 있다.

부모를 통한 놀이치료를 적용한 연구들은 부모를 치료 전달자로 이용한 치료 기법이 유아-치료사의 놀이치료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Van Fleet, 1995; White et al., 1997). Axline (1947)은 치료사와 부모가 치료적 동맹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즉 치료사와 부모가 원활한 정보 교환과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 치료의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는 것이 성공적인 치료를 이루는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현주(2000)에 의하면 놀이치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상담 만족도가 높다고 하여 아동과 부모가 치료적 동맹을 맺는 것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유아교육현장은 유아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유아의 발달상의 부적응 문제를 발견하기가 쉽다. 겸사나 부모의 보고에만 의존하여 유아의 발달상 부적응을 판별하기보다는 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사들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관찰하고 진단하면 유아의 문제가 초기에 발견될 수 있으며,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지만 발달상의 어려움을 지닌 유아들은 교사들이 치료적 시각을

갖고 개별적으로 수용해줌으로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 놀이치료의 최종 목표는 치료된 상태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일반화되는 것이라는 통합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남경화, 1998).

유아교육현장에서 놀이치료를 통하여 교사와 유아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유아의 발달적 부적응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많은 교사들이 치료자 훈련을 받았으며, 학교 내에서 이들에 의해 시행된 많은 치료 프로그램들(Guerney, 1969; Jones, 1992)이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되었다. 최근에는 심리치료 기술을 훈련받은 유치원 교사가 치료를 시행하는 "교사를 통한 놀이치료(kinder therapy)"란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교사를 통한 놀이치료는 새로운 놀이치료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김광웅, 1998).

그러나 국내의 유아교육현장에서 부모와 교사가 상담 및 치료를 적용한 사례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이는 부모나 교사들이 상담 및 치료를 전문적인 영역으로 생각해서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영아(2004)의 지적에서도 보듯이, 상담 및 치료는 아직 부모와 교사들의 접근 노력이 제한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발달상의 문제, 부적응행동의 문제를 갖고 있는 유아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치료조력자로서 부모, 교사의 역할이 더욱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상담 및 치료에 대한 부모나 교사의 인식은 아동상담의 실시와 효과적인 종결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영아(2004), 주혜은(2005), 김정희(2003)등의 연구에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며, 주로 유치원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며, 보육교사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육시설은 유치원과 달리 장기간의 보육을 특징으로 한다. 하루의 대부분을 영·유아들과 함께 보내는 보육 교사의 아동상담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와 어머니들이 아동상담 및 치료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경험은 어떠한지, 효과에 대한 인식, 아동상담 및 치료의 유아교육 현장과 가정에서의 적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상담자와의 치료적 동맹인 부모, 교사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아동상담에 대한 보육교사와 유아기 어머니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상담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1-1] 아동상담의 효과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1-2] 아동상담 장소, 시간, 대상 및 상담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1-3] 아동상담 관련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상담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어떠한가?

[2-1] 아동상담의 효과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2] 아동상담 장소, 시간, 대상 및 상담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3] 아동상담 관련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상담에 대한 보육교사와 어머니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가?

어머니 260명이다. 교사는 경력 1년 이상의 한 학급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는 어린이집 교육 경험이 있는 만5세 유아의 어머니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본 연구대상 보육교사와 어머니의 인구학적 배경은 <표 1>, <표 2>와 같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아동상담에 대한 보육교사와 어머니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된 질문지로 관련된 이영아(2004), 박현주(2000), 주혜은(2005)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와 관련 문헌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자들이 작성한 것이다.

질문지는 교사용과 어머니용 2가지로 구성되었으며, 교사용 질문지는 27문항, 어머니용 질문지는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지의 구성 내용은 아동상담의 효과, 아동상담 장소, 시간, 대상 및 상담자에 대한 인식, 아동상담 관련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어린이집에서의 아동상담 실시현황에 관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도구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2006년 4월9일에서 4월 20일에 걸쳐

<표 1> 연구대상 보육교사의 인구학적 배경

구 분	내 용	비 도(%)
연 령	만 20세~25세 미만	63(25.8)
	만 25세~30세 미만	51(20.9)
	만 30세~35세 미만	44(18.0)
	만 35세~40세 미만	43(17.6)
	만 40세 이상	43(17.6)
총 계		244(100)
학 력	고등학교 졸업	13(5.4)*
	전문대학 졸업	150(61.5)
	대학교 졸업이상	81(33.2)
	총 계	244(100)
시설유형	국공립 보육시설	31(12.7)
	법 인 보육시설	70(28.7)
	민 간 보육시설	68(27.9)
	가 정 보육시설	65(26.6)
	직 장 보육시설	4(1.6)
	총 계	244(100)
경 력	1년~ 5년	135(55.3)
	6년~10년	65(26.6)
	11년~15년	28(11.5)
	16년 이상	13(5.3)
	총 계	241(100)

*고등학교 졸업자에는 보육교사교육원 졸업자 4명이 포함되어 있음

<표 2> 연구대상 어머니의 인구학적 배경

구 분	내 용	빈 도(%)
연 령	만 30세 미만	21(8.0)
	만 30세~35세 미만	106(40.5)
	만 35세~40세 미만	97(37.0)
	만 40세~45세 이상	36(20.3)
총 계		260(100)
학 력	고등학교 졸업	108(41.2)
	전문대학 졸업	66(25.2)
	대학교 졸업 이상	82(31.3)
총 계		260(100)
취업유무	취 업	108(42.0)
	비취업	152(58.0)
	총 계	260(100)
자녀 수	1명	44(16.8)
	2명	169(64.3)
	3명 이상	47(17.9)
총 계		260(100)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교사용 질문지의 경우, 광주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어머니용 질문지의 경우 광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어머니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질문지의 이해가 부족한 문항과 어머니의 질문지에서 자녀의 수를 객관식으로 수정하였고, 아동상담의 효과와 전문적인 교육경로에 대한 질문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후 수정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2006년 4월23일에서 4월27일에 걸쳐 광주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교사 280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사용 질문지는 해당 어린이집의 기관장을 통해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어머니용 질문지는 기관장과 담임교사의 협조를 구한 뒤, 담임교사가 유아를 통해 어머니에게 배부 및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배부된 질문지 중에서 교사용 280부와 어머니용 290부가 회수되어, 회수된 질문지 중에서 무응답이거나 성실하게 답하지 않은 질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교사용 244부와 어머니용 260부의 질문지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및 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 SPSS 1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교사와 어머니의 인구학적 배경과 아동상담의 효과, 아동상담 장소, 시간, 대상 및 상담자에 대한 인식, 아동상담 관련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등에 대한 보육교사와 어머니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았고,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상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χ^2 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아동상담에 대한 보육교사와 유아기 어머니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상담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1) 아동상담의 효과에 대한 인식

아동상담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돋는 방법으로서 아동상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알게 된 경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본 결과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돋는 방법으로서 아동상담을 알고 있는 교사들은 전체 응답자 중 95.1%로 많았다. 아동상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 응답한 233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상담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 응답한 결과, 교사들은 유아교육현장 연수(36.9%)를 통해 가장 많이 알게 되었으며, 학부 때 강의(28.7%), 인터넷, 신문 등 대중매체(18.9%), 참고서적(3.7%) 및 아동상담사(3.7%)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주혜은, 2005)를 근거로 어려움을 가진 유아의 유형으로 분리불안, 무기력, 공격성, 선택적 항복, 상호작용의 어려움, 주의산만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어려움을 가진 유아에 대한 아동상담의 효과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사들은 아동상담의 효과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56.6%), 약간 그렇다(34.0%), 보통이다(9.4%)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모든

<표 3> 아동상담을 알고 있는 정도와 알게 된 경로

아동상담을 알고 있는 정도	빈 도(%)	아동상담을 알게 된 경로	빈 도(%)
조금 알고 있다	135(55.3)	유아교육현장 연수	90(36.9)
잘 알고 있다	97(39.8)	학부 때 강의	70(28.7)
잘 모른다	10(4.1)	인터넷, 신문 등 대중매체	46(18.9)
전혀 모른다	2(0.8)	참고서적	9(3.7)
		아동상담사	9(3.7)
		기 타	15(6.1)
총 계	244(100)	총 계	239(100)

<표 4> 어려움을 가진 유아에 대한 아동상담의 효과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

어려움을 가진 유아에 대한 아동상담효과	빈 도(%)	아동상담을 통한 도움 받는 측면	빈 도(%)
매우 그렇다	138(56.6)	부정적 경험과 감정해소	141(58.7)
약간 그렇다	83(34.0)	자기조절 및 주도성	56(23.3)
보통이다	23(9.4)	유아와 또래와의 관계	23(9.6)
별로 그렇지 않다	0(0.0)	유아의 언어표현	15(6.3)
전혀 그렇지 않다	0(0.0)	기 타	5(2.1)
총 계	244(100)	총 계	240(100)

<표 5> 유아교육 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아동상담 실시가능 여부와 아동상담 적합 장소

아동상담 실시가능 여부	빈 도(%)	아동상담 적합 장소	빈 도(%)
예	198(81.5)	상담실	128(54.0)
		어린이집	70(29.5)
		가 정	30(12.7)
아니오	45(18.5)	정신과 병원	4(1.7)
		기 타	5(2.1)
총 계	243(100)	총 계	237(100)

교사들이 어려움을 가진 유아에게 아동상담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상담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244명의 교사들이 아동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측면에 관한 응답한 결과, 교사의 58.7%가 아동상담을 통해 부정적 경험과 감정해소에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들은 아동상담을 통해 자기조절 및 주도성(23.3%), 유아와 또래와의 관계(9.6%), 유아의 언어표현(6.3%)의 순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2) 아동상담 장소, 시간, 대상 및 상담자에 대한 인식
유아교육 현장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질문한 후, 아동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응답한 교사를 중심으로 아동상담 실시 장소, 시간,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아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교육 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아동상담 실시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아동상담으로 적합한 장소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의 아동상담 실시는 전체 응답자의 81.5%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상담 장소로는 상담실(54.0%)이 가장 적합하며, 어린이집(29.5%), 가정(12.7%), 정신과 병원(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아동상담으로 적합한 장소와 시간에 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로, 교사들은 일과 운영 후(56.5%)가 가장 적합한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고, 다음으로 일과 운영 시간 내(26.4%), 토요일(10.0%), 기타(4.6%), 방학 기간(2.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상담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어린이집 교실(41.5%)이며, 잉여교실(19.1%), 유희실(18.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어린이집 현장에서 아동상담 적합 장소와 시간

현장의 아동상담 실시시간	빈 도(%)	아동상담 적합 장소	빈 도(%)
일과 운영 후	135(56.5)	어린이집 교실	98(41.5)
일과 운영 시간 내	63(26.4)	유희실	44(18.6)
토요일	24(10.0)	잉여교실	45(19.1)
방학기간	6(2.5)	기 타	49(20.8)
기 타	11(4.6)		
총 계	239(100)	총 계	236(100)

<표 7> 아동상담가의 개인적인 주요 자질과 아동상담가로 적합한 사람

아동상담가의 주요자질	빈 도(%)	상담가로 적합한 사람	빈 도(%)
유아에게 신뢰를 주는 진실함	120(49.2)	전문 상담가	120(49.4)
인간존재의 가치와 존엄성	72(29.5)	보육교사	83(34.2)
유아를 잘 수용하는 사람	38(15.6)	학부모	36(14.8)
감정이입을 잘하는 사람	13(5.3)	기 타	4(1.6)
기 타	1(0.4)		
총 계	244(100)	총 계	243(100)

<표 8> 아동상담 실시할 때 전문교육의 필요 정도와 교육경험 여부

전문적인교육 필요 정도	빈 도(%)	전문적인 교육경험 여부	빈 도(%)
매우 그렇다	171(70.4)	없 다	167(68.7)
약간 그렇다	62(25.5)		
보통이다	8(3.3)	있 다	76(31.3)
별로 그렇지 않다	2(0.8)		
전혀 그렇지 않다	0(0.0)		
총 계	243(100)	총 계	243(100)

<표 7>은 아동상담가의 개인적인 주요 자질과 아동상담가로 적합한 사람에 관한 보육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사들은 아동상담가의 주요 자질로 유아에게 신뢰를 주는 진실함(49.2%)을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인간존재의 가치와 존엄성(29.5%), 유아를 잘 수용하는 사람(15.6%), 감정이입을 잘하는 사람(5.3%)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상담가로 적합한 사람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전문상담가(49.4%), 보육교사(34.2%), 학부모(14.8%), 기타(1.6%)의 순으로 나타나 전문상담가가 아동상담가로 적합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3) 아동상담 관련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아동상담 관련 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교사의 인식과 관련하여 아동상담 교육의 필요 여부, 교육경험, 교육경험 경로를 알아보았다.

<표 8>은 아동상담을 실시할 때 전문교육의 필요 정도와

교육경험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로, 전체 응답자의 95.9%에 해당하는 교사들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아동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 여부는 전체 응답자의 68.7%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아동상담에 대한 전문적 교육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지만, 실제로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9>는 아동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 경로와 관심에 관한 분석 결과로 교사들은 학부 때 수강과목(37.7%)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경험했으며 다음으로 유아교육현장 연수(35.5%), 기타(17.4%), 상담 관련 학회 가입(8.0%), 인터넷 강의(1.4%)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아동상담을 배우고자 하는 관심은 98.4%로 대다수의 교사들이 아동상담을 배우고자 하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은 아동상담에 대해 배우고자 할 때 느끼는 어려움과 배우고 싶은 이유에 대한 분석결과로, 교사들은 아동상담에 대해 배우고자 할 때 시간적 어려움(49.6%)이 가장 어

<표 9> 아동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 경로와 관심

전문적인 교육 경험 경로	빈 도(%)	배우고자 하는 관심	빈 도(%)
학부 때 수강과목	52(37.7)	매우 그렇다	125(50.8)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연수	49(35.5)	약간 그렇다	94(38.3)
인터넷 강의	2(1.4)	보통이다	23(9.3)
상담 관련 학회가입	11(8.0)	별로 그렇지 않다	4(1.6)
기 타	24(17.4)	전혀 그렇지 않다	0(0.0)
총 계	138(100)	총 계	246(100)

<표 10> 아동상담에 대해 배우고자 할 때 느끼는 어려움과 배우고 싶은 이유

느끼는 어려움	빈 도(%)	배우고 싶은 이유	빈 도(%)
시간적 어려움	121(49.8)	유아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209(85.7)
정보의 부족	66(27.3)	유아교육 이론 중 하나이므로	26(10.7)
교육기관의 부족	30(12.3)	아동상담가가 되기 위해	4(1.6)
교육프로그램의 부족	18(7.4)	기 타	5(2.0)
경제적 어려움	4(1.6)		
기 타	4(1.6)		
총 계	243(100)	총 계	244(100)

<표 11> 아동상담을 배우고 싶은 장소와 습득 방법

아동상담을 배우고 싶은 장소	빈 도(%)	아동상담 습득방법	빈 도(%)
상담관련 학회를 통하여	98(40.3)	상담가의 사례설명	86(35.3)
전문분야의 대학원 과정을 통하여	74(30.5)	실제적인 워크샵	76(31.1)
연구소, 상담소를 통하여	58(23.9)	아동상담 장면 참관	70(28.7)
기 타	13(5.3)	이론 강의나 연구	12(4.9)
총 계	243(100)	총 계	244(100)

려운 점으로 들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보의 부족(27.3%), 교육기관의 부족(12.3%), 교육프로그램의 부족(7.4%), 경제적 어려움(1.6%)을 들고 있다. 또한, 아동상담을 배우고 싶은 이유는 유아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85.7%), 다음으로 유아교육 이론 중 하나이기 때문에(10.7%), 기타 (2.0%), 아동상담가가 되기 위해서(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은 아동상담을 배우고 싶은 장소와 습득 방법에 관한 분석결과로, 가장 많은 교사들이(40.3%) 상담관련 학회를 통해 아동상담을 배우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분야 대학원 과정(30.5%). 연구소, 상담소(23.9%), 기타(5.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의 아동상담 습득방법은 상담가의 사례 설명(35.3%)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적인 워크샵(31.1%), 아동상담 장면 참관(28.7%), 이론 강의나 연구(4.9%)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어린이집에서의 아동상담 실시현황

어린이집에서의 아동상담 실시 현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유아 지도상의 어려움을 경험해보았는지, 경험한 경우 어떠한 어려움을 가진 유아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먼저 유아교육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유아 지도상의 어려움을 경험해 본적이 있는지와 어떤 어려움이 있는 유아인지에 대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를 보면, 대부분의 교사들(95.0%)이 유아지도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유아가 가진 어려움은 주의 산만한 유아(60.2%), 공격적인 유아(46.3%), 또래와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유아(37.7%), 분리불안 유아(24.6%), 무기력한 유아(18.9%), 선택적 함묵을 보이는 유아(10.7%), 기타(7.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아동상담 실시 경험과 교사가 알고 있는 아동상담 유형에 관한 분석결과

<표 12> 유아 지도상의 어려움 여부와 유아가 가진 어려움 (중복응답)

유아 지도상의 어려움 여부	빈 도(%)	유아가 가진 어려움	빈 도(%)
예	229(95.0)	주의 산만한 유아	147(60.2)
		공격적인 유아	113(46.3)
		또래와 상호작용이 잘 안되는 유아	92(37.7)
		분리불안 유아	60(24.6)
아니오	12(5.0)	무기력한 유아	46(18.9)
		선택적 힘묵을 보이는 유아	26(10.7)
		기 타	19(7.8)
총 계	241(100)	총 계	503

<표 13>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아동상담 실시 경험과 교사가 알고 있는 아동상담 유형 (중복응답)

아동상담 실시 경험여부	빈 도(%)	아동상담 유형	빈 도(%)
아니오	177(73.4)	놀이치료	220(90.2)
		미술치료	200(82.0)
		독서치료	106(43.4)
		모래놀이치료	100(41.0)
총 계	241(100)	총 계	626

<표 14> 아동상담을 알고 있는 정도와 알게 된 경로

아동상담을 알고 있는 정도	빈 도(%)	아동상담을 알게 된 경로	빈 도(%)
조금 알고 있다	157(60.9)	인터넷, 신문 등 대중매체	144(56.9)
잘 알고 있다	77(29.8)	주변사람	57(22.5)
잘 모른다	19(7.4)	참고서적	17(6.7)
전혀 모른다	5(1.9)	아동상담가	11(4.3)
		어린이집 학부모 연수	9(3.6)
총 계	258(100)	기 타	15(6.0)
		총 계	253(100)

로, 대부분의 교사들(73.4%)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아동상담을 실시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상담을 실시한 경우, 아동상담의 유형에 관한 중복응답 결과, 놀이치료가 가장 많았으며(90.2%), 다음으로 미술치료(82.0%), 독서치료(43.4%), 모래놀이치료(41.0%)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아동상담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1) 아동상담의 효과에 대한 인식

어머니의 아동상담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경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아동상담에 대하여 어머니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

아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동상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90.7%), 아동상담을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6.9%), 주변사람(22.5%), 참고서적(6.7%), 기타(6.0%), 아동상담가(4.3%), 어린이집 학부모 연수(3.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는 어려움을 가진 유아에 대한 아동상담의 효과와 도움 측면에 관한 분석결과로, 대부분의 어머니들(99.2%)은 아동상담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은 아동상담을 통해 부정적 경험과 감정해소에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52.8%), 자기조절 및 주도성(38.9%), 유아의 언어표현(3.9%), 유아와 또래와의

<표 15> 어려움을 가진 유아에 대한 아동상담의 효과와 도움 측면

아동상담효과	빈 도(%)	아동상담을 통한 도움측면	빈 도(%)
매우 그렇다	148(57.4)	부정적 경험과 감정해소	133(52.8)
약간 그렇다	88(34.1)	자기조절 및 주도성	98(38.9)
보통이다	20(7.7)	유아의 언어표현	10(3.9)
별로 그렇지 않다	2(0.8)	유아와 또래와의 관계	7(2.8)
전혀 그렇지 않다	0(0.0)	기 타	4(1.6)
총 계	258(100)	총 계	252(100)

<표 16> 가정에서 어머니의 아동상담 실시 가능 여부와 적합한 실시장소

가정에서 실시가능여부	빈 도(%)	적합한 실시장소	빈 도(%)
아니오	161(62.3)	상담실	118(47.0)
		가 정	67(26.7)
예	93(37.7)	어린이집	52(20.7)
		정신과 병원	5(2.0)
		기 타	9(3.6)
총 계	254(100)	총 계	251(100)

<표 17> 아동상담가의 개인적인 자질과 아동상담가로 적합한 사람

아동상담가의 주요자질	빈 도(%)	적합한 사람	빈 도(%)
유아에게 신뢰를 주는 진실함	107(41.5)	전문 상담가	167(65.2)
인간존재의 가치와 존엄성	85(32.9)	학부모	46(18.0)
유아를 잘 수용하는 사람	53(20.5)	보육교사	42(16.4)
감정이입을 잘하는 사람	12(4.7)	기 타	1(0.4)
기 타	1(0.4)	총 계	256(100)
총 계	258(100)	총 계	256(100)

관계(2.8%), 기타(1.6%)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아동상담 장소, 시간, 대상 및 상담자에 대한 인식
가정에서 부모가 아동상담을 실시 가능 여부와 실시 장소, 상담 대상이 되는 유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가정에서 부모가 아동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62.3%의 어머니가 가정에서 아동상담실시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상담 실시하기에 적합한 장소로는 상담실이 가장 많았으며(47.0%), 가정(26.7%), 어린이집(20.7%), 기타(3.6%), 정신과 병원(2.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은 아동상담가의 개인적인 자질과 아동상담가로 적합한 사람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로, 어머니는 아동상담가의 가장 주요자질로 유아에게 신뢰를 주는 진실함(41.5%)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간존재의 가치와 존

엄성(32.9%), 유아를 잘 수용하는 사람(20.5%), 감정이입을 잘 하는 사람(4.7%), 기타(0.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들은 아동상담가로 전문상담가가 적합하다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65.2%), 학부모(18.0%), 보육교사(16.4%), 기타(0.4%)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아동상담 관련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아동상담 관련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상담 실시할 때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지, 교육경험 여부,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하여 알게 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아동상담을 가정에 적용할 때 전문적인 교육 필요정도와 교육경험 여부를 알아본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다수의 어머니들(96.9%)은 아동상담을 실시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 반면, 전문적인 교육경험은 대다수의 어머니(88.5%)

<표 18> 아동상담 실시할 때 전문교육의 필요 정도와 교육경험 여부

전문적인교육 필요 정도	빈 도(%)	전문적인 교육경험 여부	빈 도(%)
매우 그렇다	120(46.6)		
약간 그렇다	115(43.8)	없 다	230(88.5)
보통이다	17(6.5)		
별로 그렇지 않다	7(2.7)	있 다	28(11.5)
전혀 그렇지 않다	1(0.4)		
총 계	260(100)	총 계	258(100)

<표 19> 아동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 경로와 관심

전문적인 교육 경험 경로	빈 도(%)	배우고자 하는 관심	빈 도(%)
인터넷 강의	101(12.2)	약간 그렇다	123(46.9)
학부모 연수	14(17.1)	매우 그렇다	83(32.5)
상담 관련 학회가입	13(15.8)	보통이다	44(16.8)
기 타	45(54.9)	별로 그렇지 않다	9(3.4)
총 계	82(100)	전혀 그렇지 않다	1(0.4)
		총 계	260(100)

<표 20> 아동상담에 대해 배우고자 할 때 느끼는 어려움과 배우고 싶은 이유

느끼는 어려움	빈 도(%)	배우고 싶은 이유	빈 도(%)
정보의 부족	100(38.9)	자녀교육에 적용하기 위해	196(75.7)
시간적 어려움	70(27.2)	자녀교육 이론 중 하나이므로	46(17.8)
교육기관의 부족	40(15.6)	아동상담가가 되기 위해	7(2.7)
교육프로그램의 부족	19(7.4)	기 타	10(3.8)
경제적 어려움	19(7.4)		
기 타	9(3.5)	총 계	259(100)
총 계	257(100)		

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는 아동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 경로와 관심에 관한 분석결과로, 어머니들은 아동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은 기타(54.9%), 학부모 연수(17.1%), 상담 관련 학회가입(15.8%), 인터넷 강의(12.2%)등을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어머니들(96.2%)은 아동상담에 관해 배우고자 하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은 아동상담에 대해 배우고자 할 때 느끼는 어려움과 배우고 싶은 이유에 관한 분석결과로, 어머니들은 아동상담을 배우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정보의 부족이 가장 많았으며(38.9%), 시간적 어려움(27.2%), 교육기관의 부족(15.6%), 교육프로그램의 부족(7.4%) 및 경제적 어려움(7.4%), 기타(3.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은 어머니들이 아동상담을 배우고 싶은 장소와 습득 방법에 관한 응답 결과로, 어머니들이 아동상담을 배우고 싶은 장소로 상담관련학회(40.3%)로 응답했으며, 연구소,

상담소(31.7%), 전문분야의 대학원 과정(15.0%), 기타(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들은 아동상담 습득 방법으로 상담가의 사례설명(34.8%)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제적인 워크샵(32.9%), 아동상담 장면 참관(23.6%), 이론 강의나 연구(8.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는 어머니가 알고 있는 아동상담 유형에 관한 분석 결과로 중복응답을 요구하였으나 거의 모든 연구대상자들이 중복응답을 하지 않았다.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들은 놀이치료(89.7%)를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며, 미술치료(75.6%), 모래놀이치료(25.2%), 독서치료(22.1%)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아동상담에 대한 보육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비교

아동상담에 대한 보육교사와 어머니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보육교사와 어머니의 인식이 다르게 나타난 문항

<표 21> 아동상담을 배우고 싶은 장소와 습득 방법

아동상담을 배우고 싶은 장소	빈도(%)	아동상담 습득방법	빈도(%)
상담관련 학회를 통하여	102(40.3)	상담가의 사례설명	90(34.8)
연구소, 상담소를 통하여	80(31.7)	실제적인 워크샵	85(32.9)
전문분야의 대학원 과정을 통하여	38(15.0)	아동상담 장면 참관	61(23.6)
기타	33(13.0)	이론 강의나 연구	22(8.5)
총계	253(100)	총계	258(100)

<표 22> 어머니가 알고 있는 아동상담 유형

(종복응답)

아동상담 유형	빈도(%)
놀이치료	235(89.7)
미술치료	198(75.6)
모래놀이치료	66(25.2)
독서치료	58(22.1)
총계	557

<표 23> 아동상담 실시가능 여부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비교

아동상담 실시가능 여부	교사의 인식	어머니의 인식	X ²
예	198(81.5)	93(37.7)	
아니오	45(18.5)	161(62.3)	1.16
총계	243(100)	254(100)	

<표 24> 아동상담 실시 적합 장소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비교

아동상담 적합 장소	교사의 인식	어머니의 인식	X ²
상담실	128(54.0)	118(47.0)	
어린이집	70(29.5)	52(20.7)	
가정	30(12.7)	67(26.7)	12.16
정신과 병원	4(1.7)	5(2.0)	
기타	5(2.1)	9(3.6)	
총계	237(100)	251(100)	

의 결과를 중심으로 두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을 실시하였다.

유아교육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아동상담 실시가능 여부, 아동상담하기에 적합한 장소, 아동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 경로와 배우고자하는 관심, 아동상담에 대해 배우고자 할 때 느끼는 어려움, 알고 있는 아동상담 유형으로 6가지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알아본 결과는 <표 23>, <표 24>, <표 25>와 같다.

<표 23>, <표 24>, <표 2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상담에 대한 보육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중 보육교사의 아동상담 실시가능 여부, 아동상담하기에 적합한 장소, 아

동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 경로 인식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상담 교육에 관한 관심에서 <표 2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사와 어머니 대다수가 교육에 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상담을 배우고자 할 때 느끼는 어려움은 교사의 경우, 시간적인 어려움이 가장 커었으나, 어머니의 경우, 정보의 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27>. 이는 앞서 <표 25> 아동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 경로에 관한 인식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의 경우, 유아교육 연수 등 아동상담에 관한 정보제공은 어머니보다 많으나, 시간적인

<표 25> 아동상담 전문적인 교육경험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비교

전문적인 교육 경험 경로	교사의 인식	전문적인 교육 경험 경로	어머니의 인식	χ^2
학부 때 수강과목	52(37.7)	인터넷 강의 학부모 연수 상담 관련 학회가입 인터넷 강의 기타	101(12.2)	12.67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연수	49(35.5)		14(17.1)	
상담 관련 학회가입	11(8.0)		13(15.8)	
인터넷 강의	2(1.4)			
기타	24(17.4)		45(54.9)	
총 계	138(100)	총 계	82(100)	

<표 26> 아동상담 교육 관심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비교

배우고자 하는 관심	교사의 인식	어머니의 인식	χ^2
매우 그렇다	125(50.8)	83(32.5) 123(46.9) 44(16.8) 9(3.4) 1(0.4)	19.65*
약간 그렇다	94(38.3)		
보통이다	23(9.3)		
별로 그렇지 않다	4(1.6)		
전혀 그렇지 않다	0(0.0)		
총 계	246(100)	260(100)	

*p<.05

<표 27> 아동상담을 배우고자 할 때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비교

느끼는 어려움	교사의 인식	어머니의 인식	χ^2
시간적 어려움	121(49.8)	100(38.9) 40(15.6) 19(7.4) 70(27.2) 19(7.4) 9(3.5)	46.04*
정보의 부족	66(27.3)		
교육기관의 부족	30(12.3)		
교육프로그램의 부족	18(7.4)		
경제적 어려움	4(1.6)		
기타	4(1.6)		
총 계	243(100)	257(100)	

*p<.05

<표 28> 아동상담 유형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비교

(중복응답)

아동상담 유형	교사의 인식	어머니의 인식	χ^2
놀이치료	220(90.2)	235(89.7)	4.35
미술치료	200(82.0)	198(75.6)	4.16
독서치료	106(43.4)	58(22.1)	1.73
모래놀이치료	100(41.0)	66(25.2)	2.86
총 계	626	557	

어려움이 실제로 아동상담을 배우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교사의 근무환경을 고려한 교육기회 제공, 연수 제공 등의 방법이 실제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상담 유형에 관해 교사와 어머니 모두, 놀이치료와 미술치료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8>. <표 28>의 결과는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아동상담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아동상담과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 아동들의 상담 유형으로 놀이치료의 효과를 입증했거나 유아교육현장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에 교사나 어머니 모두 놀이치료에 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교사의 경우, 놀이치료와 미술치료 외에 모래놀이치료, 독서치료 등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복응답을 요구하였으나 많은 연구대상들이 중복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상담에 대한 보육 교사와 어머니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상담에 대한 보육 교사의 인식

(1) 아동상담의 효과에 대한 인식

아동상담의 효과에 대한 인식은 연구대상이나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은(95.1%) 아동상담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알게 된 경로는 유아교육 연수 학부 때 강의, 인터넷,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을 가진 유아에 대한 놀이치료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놀이 치료를 통하여 유아의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가장 많이 줄 수 있고, 유아의 자기 조절 및 주도성, 또래 와의 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 대부분이 아동상담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고, 놀이치료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충청남도에 소재한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놀이치료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이영아(200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만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들은 유아교육 현장 연수, 유치원 교사들은 학부 때의 강의에 의한 경로가 우세하였다.

(2) 아동상담 장소, 시간, 대상 및 치료자에 대한 인식

보육교사의 81.1%가 보육 현장에서 보육 교사가 아동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린이집 교실, 가정 등의 공간에서 일과 운영 시간 후, 일과 운영 시간 내에 실시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보육 교사들 대부분이 보육 현장에서 교사들에 의한 아동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유치원에서 유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달을 돋기 위하여 놀이치료를 적용한 사례들(곽희숙, 2003; 김은정, 2003; 김진선, 2003; 소경란, 2002; 유영의, 1994; 조선형, 1998; 조희순, 1992; 함경희, 2003)을 보면 유아교육기관의 교실이나 놀이실을 이용하여 모래 상자 놀이를 통한 놀이치료를 실시하여 유아의 발달적 문제가 해결되어가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White 등(1997)가 제시한 바와 같이 교사를 통한 놀이치료가 우리나라에서도 실시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며 유아교육 기관의 설정을 감안해 볼 때, 독립된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유아교육기관의 설정을 고려한 상담실의 설치, 운영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아동상담사가 되기에 필요한 개인적인 자질로 유아에게 신뢰를 주는 진실한 사람, 유아를 잘 수용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아동상담사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전문 상담사, 보육교사, 학부모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상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아동상담을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놀이치료사의 자격으로 인간에 대한 전문적 이해, 유아발달에 대한 전문성이 기본이라고 한 Guerney(1983)과 주혜은(2005)의 논문에서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아동상담자로서의 자질을 연마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훈련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3) 아동상담 관련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교사들 대부분이(95.5%) 아동상담을 실시할 때 전문적인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아동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경험은 31.1%로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주혜은(2005)의 연구에서는 8.4%인 것에 비교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래의 아동상담에 대한 보육현장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학부 때 수강과목, 유아교육 연수과정 등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상담에 대하여 배우고 싶어 하지만(99.1%), 시간적 어려움, 아동상담에 대한 정보 부족, 교육기관의 부족 등으로 아동상담에 대하여 배우고자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은 상담 관련 학회, 전문 분야의 대학원을 통해 실제적인 워크샵과 상담가의 사례발표, 아동상담 장면의 참관을 통하여 배운 후 보육 현장에 적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 결과에서 볼 때 보육 교사들의 아동상담에 대한 전문적 지식 욕구는 강하나 30% 정도의 교육 경험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혜은(2005)의 연구에서는 놀이치료실에서의 연수를 원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담 관련

학회에서의 상담사례발표를 보육 교사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회나 치료센터에서 현직 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원했다고 제시한 White 등(1997)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로 비추어 아동 상담 관련 학회에서는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4) 어린이집의 아동상담 실시 현황

어린이집에서의 아동상담 실시 현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유아지도상의 어려움 측면에 대해 알아본 결과, 보육 교사 93.9%가 지도상의 어려움을 가진 유아를 경험하였으며, 교사들이 경험한 지도상의 어려움을 지닌 유아의 어려움은 주의 산만한 유아, 공격적인 유아, 또래와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유아, 분리불안 유아, 무기력한 유아, 선택적 함께 유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 현장에서 급격한 사회발달로 인해 발달상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유아가 증가하고 있음과 더불어 보육 교사들이 유아 지도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의 문제행동 발생률이 14%에서 22%에 이르고 장애정도가 심각하여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8%에서 10%에 이른다는 이현정(2002)의 연구와 일치한다.

교사들이 아동상담 치료를 실시한 경험은 아직 제한적이다(26.2%). 그러나 이는 주혜은(2005)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2.4%보다는 양적 증가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놀이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 모래놀이 치료의 순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볼 때 대부분의 보육 교사들이 아동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관련 선행연구(손금옥, 2000; White et al., 1997)들을 통해 제시된 바와 같이 유치원(보육)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에서 유아 상담 및 치료와 관련한 이론적 교육과 실습을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를 통한 놀이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담관련 교수들에게 상담자 기초 과정의 이수 및 워크샵, 협의회 참가 및 관련 서적에 대한 탐독 등을 통한 상담교육 경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아동상담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1) 아동상담의 효과에 대한 인식

어머니들의 90.0%가 아동상담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아동상담을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55.0%), 주변 사람들, 참고서적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98.9%가 아동상담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상담을 통하여 유아의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 해소, 자기 조절 및 주도성, 유아의 언어 표현, 또래와의 관계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김은정, 2003; 김진선, 2003; 조선향, 1998; 조희순, 1992; 주혜은, 2005)등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사나 어머니 모두 놀이치료가 어려움을 가진 유아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입증하는 바라 하겠다. 즉 어려움을 지닌 유아들이 자유롭게 놀이를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공포심, 공격성, 분노, 절투 등의 부정적인 감정과 과거에 경험한 부정적인 경험을 해소하고 자신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조절하고 주도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상담의 효과성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긍정적인 인식은 유아교육현장에서 어머니와 치료자의 치료동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더불어 상담자와 함께 아동에 대한 상담을 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아동상담 장소, 대상 및 치료자에 대한 인식

어머니의 62.3%가 가정에서 아동상담을 실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적인 상담실이 아동 상담을 실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놀이치료사가 되기에 적합한 자질로 어머니들은 유아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 인간 존재의 가치와 존엄성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동상담가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전문 상담가, 학부모, 보육 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 결과는 아동상담을 전문적인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지적한 이영아(2004)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3) 아동상담 관련 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대부분의 어머니들이(96.9%) 아동상담을 가정에서 실시할 때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아동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은 11.5%로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혜은(2005)의 연구에서는 5.4%인 것에 비해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교육경험이 11.5%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동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어머니들은 학부모 연수, 보육교사 양성과정, TV, 특수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96.2%가 아동상담에 대하여 배우고 싶어하였고, 정보의 부족, 시간적 어려움, 교육 기관의 부족 등으로 놀이치료에 대하여 배우고자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상담 관련 학회를 통하여 상담 사례, 워크샵과 상담 장면의 참관을 통해 배운 후 자녀

교육에 적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상담에 대한 보육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비교

아동상담에 대한 보육교사와 어머니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유아교육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아동상담 실시가능 여부, 아동상담하기에 적합한 장소, 아동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 경로와 배우고자하는 관심, 아동상담에 대해 배우고자 할 때 느끼는 어려움, 알고 있는 아동상담 유형으로 6가지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상담에 대한 보육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중 보육교사의 아동상담 실시가능 여부, 아동상담하기에 적합한 장소, 아동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 경로, 아동상담 유형 인식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육교사와 어머니 모두 아동상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아동상담을 배우는데 있어 어려운 점과 관련하여 보육교사는 시간상의 어려움, 어머니는 정보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아동상담 실시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교사근무 환경에 대한 고려, 보수교육과정에서의 연계교육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어머니의 경우, 부모교육 등을 통한 아동상담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부모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육현장과 연계한 조력자로서의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 인식 등이 교육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상,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와 어머니의 아동상담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며,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한 시사점들을 정리해보았다. 결론적으로 보육교사나 어머니 모두 아동상담에 대한 요구가 높고 아동상담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아동상담에 대한 인식이 실제 보육현장에서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보육교사가 함께 조력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심리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논의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 교사와 어머니의 아동상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통한 방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 구성에 있어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순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삽입한 기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연구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면접, 관찰과 같은 질적 연구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치료유형의 경우,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4가지 치료유형으로 유목화해서 조사했으며, 어려움을 가진 유아의 유형 분류에 있어 선행연구를 근거로 연구자가 분류한 유형에 따른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 치료유형, 상담이 필요한 유아의 어려움에 대한 유형분류 등의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볼 때, 아동상담의 효과에 대한 보육 교사와 어머니의 알고자 하는 욕구는 높았지만 아직까지는 아동상담을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향이 부모들에게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상담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아동상담에 대한 만족도와 관계가 깊다는(김정희, 2003; 박현주, 2000)의 연구와 관련지어 볼 때 효율적인 아동상담을 위한 치료적 동맹의 대상인 교사와 부모들이 아동상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상담관련 학회 등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 접수일 : 2007년 05월 15일
- 심사일 : 2007년 05월 28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8월 20일

【참고문헌】

- 곽희숙(2003). 정서·행동장애 유아에 대한 모래상자놀이 적용 사례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광웅(1998). 교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 활용 방안. 한국놀이치료 학회 교사를 위한 아동놀이치료 워크샵 교재, 65-80.
- 김순혜(2001). 아동상담. 서울 : 학지사.
- 김온정(2003). 비인기 유아에 대한 모래상자놀이의 적용사례.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희(2003). 미술치료 현황 및 아동미술치료에 대한 부모의 인식도와 만족도.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선(2003). 성역할 선호성에 따른 모래상자놀이 적용 사례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경화(1998). 유아교육기관의 놀이치료 사례. 한국놀이치료학회 교사를 위한 아동 놀이치료 워크샵 교재, 81-91.
- 박현주·김광웅(2002). 놀이치료 현황 및 놀이치료에 대한 어머니의 이해도와 상담 만족도 연구. 놀이치료연구, 3(2), 11-21.
- 소경란(2002). 주의력 결핍-과다행동 유아에 대한 모래상자놀이 적용 사례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금옥(2000). 교사-아동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예비교사의 공감 및 교육 신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석사학위 논문.
- 유영의(1994). 부적응 행동 유아에 대한 모래 상자 놀이 적용
사례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이영아(2004). 놀이치료에 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한국교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2002). 학교 현장에서 아동 놀이치료 적용의 필요성.
<http://Webzine.yukyoung.or.kr/db>
- 조선형(1998). 쌍생아의 모래상자놀이 사례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희순(1992). 유아의 모래놀이에 관한 일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주혜은(2005). 놀이치료에 대한 유치원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함경희(2003). 공격성을 보이는 유아의 모래상자놀이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xline, V. M. (1947). *Play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_____(1986). 서영숙 역(1969). *놀이를 통한 아동의 심리
치료*. 서울:학문사.
- Guerney, B. (1964). Filial therapy: Description and ration-
al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8, 303-310.
_____(1969). *Psychotherapeutic agents: New roles for
nonprofessionals, parents and teachers*. N.Y.: Holt, Rine-
hart, and Winston.
- Guerney, L. F. (1983). Client-centered(Nondirective) play
therapy. In C. E. Schaefer & K. J. O'connor (Eds),
Handbook of play therapy. N.Y.: John Wiley & Sons.
- Jones, P. R. (1992). Play therapy training in a residential
school for children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The British Journal of Projective Psychology*,
37, 8-17.
- Van Fleet, R. (1995). Filial therapy. *Play therapy 95 summer
workshop*. Denton, TX: Texas University- North.
- White, J., Flynt, M., & Draper, K. (1997). Kinder therapy:
Teachers as therapeutic ag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6(2), 33-49.